

	보도자료	충남도당
2016년 5월 17일(화)	담 당 : 이영구 정책실장 대변인 : 김정섭(010-6323-3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2, 승지빌딩 5층 / 041-569-1500, 010-2390-6824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바탕으로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

- 더민주 충남도당, 총선평가를 위한 당원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나소열)은 17일 예산군 덕산면에서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및 20대 총선 당선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역 위원장, 지방의원 등 당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13 총선평가를 위한 당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13 총선의 평가와 과제 : 표출된 민심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1부 총선평가 토론회, 2부 도지사와의 대화 순서로 진행했다.

공개토론회는 김정섭 충남도당 총선기획단장의 사회로 장수찬 교수(목원대), 강진원 부장(TJB), 나소열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 뒤,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위주로 토론을 이어갔다.

나소열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총선은 새누리당 8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도내에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안희정 대망론이 맞물려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셨다”고 평가하면서,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도지사와의 대화> 순서를 통해, “충남도당-충남도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민주주의라는 신념만으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당원들이 계시며 이 분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가 자랑스럽다”고 애당심을 드러냈다.

계속해서 안희정 지사는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경제적으로 빈곤하지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우리가 직업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